

## 한동훈 “5·18 헌법수룩 추진... 광주에 존경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첫 광주 방문 민심 구애  
5·18묘지·학생기념탑 참배  
“정책·예산으로 보답하겠다”



4일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적극 구애했다. <관련기사 3면>  
전국 순회 일정으로 대전에서 시작해 대구를 방문한 뒤, 세 번째로 ‘험지’인 광주를 방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의 비대위를 꾸린 뒤 ‘험지’인 광주를 찾은 것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거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슈를 재부각하는 등 광주시민들과 호남민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하며, 호남에 대한 ‘진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저와 우리 당은 광주시민들께, 호남의 시민들께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으로써, 예산으로써, 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나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내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호남 방문에 대한 진심을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 승리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자비를 호소했다.  
그는 또 “당장 저에게에 전폭적인 표를 몰아주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호남동료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기관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시당 전 당원이 풀뚝 뚫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20% 이상 득표하고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되겠다”면서 중앙당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800여명에 불과하던 광주시당 책임당원 수는 현재 1만 3100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4월 총선까지 책임당원 2만명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호남 구애는 당분간 외연 확장 차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 위원장은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해남 출신의 김경호 회계사, 광주 출신의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 호남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

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당 신년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의 총선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우리 당이) 소수당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라며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 그동안 호남이 지지했던 정부가 해주지 않았던 정책, 미뒀던 정책들을 과당성 있게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집권당인 만큼

호남이 원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보여드리고 실천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광주 제일고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엠블럼

매일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며, 현재는 미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일출 장면을 형상화해 72를 담았다.

###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영세자영업·중기, 납부 연장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제정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사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연합뉴스

### 정부, 올해 성장률 2.2%·물가상승률 2.6% 전망 건설경기 한파에 건설투자 ‘역성장’... 민간소비는 1.8% ↑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3%를 넘는 고물가에서 벗어나 2%대 중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가 길어진 탓에 민간소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p) 낮췄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지만, 한국은행(2.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예상해 정부 전망과 같다.  
정부는 내년 성장을 반등의 근거로 세계 교역 회복을 꼽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간으로는 7.4%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기 회복세가 약한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7%, G20 국가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전망치(2.3%)보다 0.4~0.5%p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해 연간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보다는 0.3%p 높아진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보다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 위험한 일본, 겁없는 여행객들 ▶6면
- 복스 -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14·15면
- KIA, 김선빈과 3년 30억원 FA 계약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체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순천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